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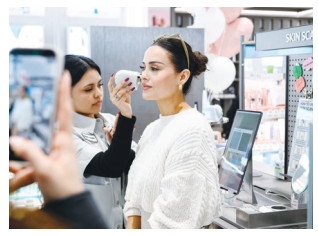
metro® Life

제6031호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연말 특별하게
프리미엄 다이닝
인기 높아진다
L1

K-뷰티
일시적 유행 넘어
미국시장 정착
L2



혈당관리부터 질환 예방까지… 기술로 만든 '건강 안전망'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헬스케어는 '기술로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미션 아래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2년 설립 이후 비대면 건강관리, 의료 데이터 표준화, 병원 디지털 전환 등 첨단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PASTA)'를 선보였다.

파스타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연동해 실시간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식사와 운동, 수면, 인슐린 투여 등 생활 습관 정보도 함께 기록해 일상 속 혈당 관리를 돕는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파스타를 통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이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수능 날도, 가족 캠프도… 당뇨 환우 곁을 든든하게

카카오헬스케어는 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실질적 지원 활동을 펼친다. 오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1형 당뇨병 수험생을 대상으로 덱스콤 G7 연속혈당측정기 전용 수신기를 무상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1형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자기기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수능 시험 중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혈당 확인이 어려워 관리에 한계가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별도의 전용 수신기를 제공한다. 수험생들이 시험 중에도 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1형 당뇨병 수험생들이 질환으로 인해 학업과 시험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는 복안이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올해 첫 수신기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능에 응시하는 1형 당뇨병 수험생 대상 무상 대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형 당뇨병 환우와 가족을 위한 교류 및 교육 활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7월, 한국1형당뇨환우회와 한국췌장장애인협회가 주최한 '2026 가족 캠프'에 덱스콤과 함께 후원사로 참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열린 이 행사는 1형 당뇨병 환우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혈당 관리 경험과 학교생활, 돌봄 부담, 자립을 위한 과제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의료기기 활용과 혈당 관리 교육을 비롯해 장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가족과 당사자 간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후원을 통해 환우와 가족들이 질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청소매니저부터 지역 주민까지…생활 속 '건강 울타리' 넓힌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업무 환경과 생활 여건으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혈당 관리 교육과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4년에는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를 운영하는 청연과 협력해 청소매니저의 건강 증진을 실현했다. 청소매니저는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신체 활동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꾸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카카오헬스케어는 교육 참여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무상 제공하고 파스타를 활용한 실시간 혈당 확인과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청소매니저들은 자신의 혈당 변화를 직접 살피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협력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고양시 덕양구·광주시·포천시 보건소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혈당관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양측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디지털 혈당 관리 프로그램인 '안티-혈당 스파이크' 등을 운영했다. 참여자의 건강검진 결과와 혈당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영양·운동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남원시보건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의료혁신센터와 협력해 디지털 건강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다. 만40세 이상 중·장년·고령층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파스타 앱을 이용해 식이 및 기본생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대사질환 고위험군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제공해 개인별 맞춤 식이 상담을 진행한다.

카카오헬스케어 김준환 부사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카카오헬스케어가 선보인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PASTA)' /카카오헬스케어

이웃 건강 지키는 첨단 헬스케어 구축
AI 기반 혈당관리 돕는 '파스타' 선봬

1형 당뇨병 환자·가족 실질적 지원
수험생에 G7 혈당측정기 무상대여
당뇨병 환우 위한 '가족캠프' 열어
혈당관리교육, 경험공유 등 유대 강화

청연과 협력, 청소매니저 건강증진
지역사회 주민 만성질환 예방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건강한 세상 실현



카카오헬스케어가 경기도 3개 보건소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혈당관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1형당뇨환우회·한국췌장장애인협회 주최 '2026 가족 캠프'에 카카오헬스케어가 동참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U-23 야구 대표팀, 세계선수권 조별리그서 베네수엘라에 0-7 완패

▲'모레노호 발탁' 서울 손정범, 첫 태극마크 이어 첫 이달의 영플레이어 /사진 뉴시스

▲한국 남자 사격 대표팀, 세계선수권 스탠다드 권총 단체전 은메달

▲창덕궁 돈화문, 본격 해체 시작…2028년 보수 완료

▲여행 예약부터 카드 결제까지…관광공사, 동남아 방한객 유치망 확대

▲거문고 명인 허윤정, 佛몽펠리에 국립오페라 무대 선다